

## 국내 주요 뉴스

이번 주 국내뉴스는 공공기관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 소식과 그린워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에 대한 소식을 전달 합니다.

01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3일 '07년 공시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공공기관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함 [보도자료](#)

- ESG 등 ① 새로운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 ②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고 ③ 통합공시 점검기준 구체화 및 정책 점검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 ESG운영 대분류를 신설함.
- 기후공시(E, 환경) 강화 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항목의 공시를 현행 직·간접배출(Scope1·2)에서 외부배출(Scope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S) 항목, 기관운영 투명성 및 ESG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보강이 필요한 지배구조(G) 항목을 추가 신설함.
-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신설하여 기관별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을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되, ESG 운영위원회 항목과 함께 '24년까지 자율공시 후 '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함.

02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경중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환경기술산업법을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임 [보도자료](#)

- 환경부는 1월 31일 올해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여기에 그린워싱 규제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최근 그린워싱 광고 등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벌금, 과징금 제재 규정만 있어 단순 기업 부주의로 인한 용어사용은 행정지도 조치만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할 예정임. 또한 소비자 체감도를 고려하여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개편하고, 환경성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경영활동 홍보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1

- 이 외에도 3조 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는 등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 원 수주를 추진할 계획임.

## ESG 센터 전문가 칼럼

- [기업과 사회] 인권실사에 대한 네 가지 오해** 더 나은 미래 2023. 2. 8.  
(임성택 대표변호사) 시민단체들은 토탈에 실사의무 이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토탈은 국제금융공사의 기준을 준수한 환경 및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실사 의무 이행계획을 보완했다. 생물다양성 정책 준수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지역 범위를 축소하고 비사용 지역에 대한 개발권리를 포기했다. 인권실사법이 바꾼 새로운 풍경이다.
- [법률라운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기억될 2023년** e대한경제 2023. 1. 30.  
(송경훈 변호사) 올해부터 당장 EU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보고의무 대상이 되고, 향후 석유화학, 운송 등으로 그 대상범위가 확대되거나 EU 이외의 국가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도입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리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법무법인(유) 지평 ESG센터

임성택 ESG 센터장 / 대표변호사	T. 02-6200-1746	E. stlim@jipyong.com
민창욱 파트너변호사	T. 02-6200-1841	E. cwmin@jipyong.com
정영일 경영연구그룹 그룹장	T. 02-6200-1803	E. yichoung@jipyong.com
지현영 변호사	T. 02-6200-1913	E. hyjee@jipyong.com